

##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 제38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_시 부문
- 회의일시 : 2020. 10. 28.(수) 14:00
- 회의장소 : 나주 본관 소회의실(ZOOM 화상회의)
- 심사위원 : 고봉준, 김명철, 김성규, 안현미, 양안다, 이용임(6명)

올해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심사위원은 원고를 교차해서 살펴보고 예심 심사에 임했다. 시부문 심사위원들은 작품 심사에 대해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보았다. 다만 본심 심사에서 장원과 우수상, 장려상 등에 대해 의견을 오랜 시간 나누었다.

글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시의 많은 소재들이 부모님의 헌신, 병으로 인한 아픔 등에 대해 쓴 작품이 많았다. 그것이 비록 상투적일지라도 심사위원들은 진정성과 삶의 애환에 함께 통증을 느끼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은 여성들의 문학적 재능과 사랑의 정신을 원고지에 옮겨 적는 대표적 행사였으며 이번 백일장에서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꼈던 사회적 차별, 학업에 대한 열망, 가족에 대한 헌신들이 시 속에 잘 나타났다.

박다운 씨의 작품 「지나가는 것」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활달한 내용 전개와 상상력이 돋보여 장원으로 선정되었다. 박다운 씨의 작품은 현대 사회의 파편성,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을 때 기차가 파국을 향해 달려가듯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몰락을 가져올 거라는 관점을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었다. 시 속 화자는 그 무거운 주제를 '흰 양말', '기차', '공룡', '외투' 등의 일상적이며 다양한 단어들로 가볍게 요리하고 있다.

김현진 씨의 작품 「달리기」는 세심한 관찰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작은 것들에 대한 애정은 애벌레와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의 그늘진 곳을 살펴보고 있으며 묘사의 충실성이 시를 어떻게 미학적 언어로 만들어 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심사 규정상 몇 편밖에 뽑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힘겨운 삶의 고비마다 문학이 왜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왜 문학으로 감동받는지 충분히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다. 더구나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모해주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가을의 입구에서 단풍이 물들어가듯 우리 마음에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행사로 마로니에백일장이 기억에 남길 기대해 본다.